



(...2 페이지에 이어)

인기 웹툰 '복학왕'에서 벌어진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기안84는 이날 오후 웹툰 복학왕 304화 '깡어인간 2화'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웹툰 말미에 사과문을 추가했다. 그는 "작품에서의 부적절한 묘사로 다시금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더 많이 고민하고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불쾌감을 드려 독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표현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과 11일 올라온 '깡어인간 1~2화' 원본에선 스페이 부족한 여성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남성 상사와 성(性)상납을 한 것처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성 인턴이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조개'를 배에 올려두고 기다란 물체로 깨는 행위가 연출되면서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안84는 사과문을 통해 "일 자리를 구하기 힘든 극

중 인물이 귀여움으로 승부를 본다는 설정을 추가하면서, 이런 사회를 개그스럽게 풍자할 수 있는 장면을 고민하다가 귀여운 수달로 그려봤다"며 "극중 인물이 물에 떠 있는 수달처럼 보이게 표현해보려고 했는데 이 장면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인턴이 사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교'로 상황을 넘어간다거나 40대 남성 팀장과 연애를 하는 식으로 그려졌다. 기안84는 "캐릭터가 귀여움이나 상사와

안녕하세요 기안84입니다.
작품에서의 부적절한 묘사로 다시금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회차에서 일 자리를 구하기 힘든 봉지은이 귀여움으로 승부를 본다는 설정을 추가하면서, 이런 사회를 개그스럽게 풍자할 수 있는 장면을 고민하다가 귀여운 수달로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달이 조개를 깨서 먹을 것을 얻는 모습을 식당 의자를 제끼고 봉지은이 물에 떠 있는 수달로 겹쳐지게 표현해보고자 했는데 이 장면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캐릭터가 귀여움이나 상사와 연애해서 취직한다는 내용도 독자분들의 지적을 살펴보고 대사와 그림도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원고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불쾌감을 드려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원고 내 크고 작은 표현에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해서 취직한다는 내용도 독자분들의 지적을 살펴보고 대사와 그림도 추가 수정했다"고 말했다. 기안84에 대한 비난 여론

은 심화되고 있다. 기안84가 출연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산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날까지 '기안84의 하차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이 2000여건 이상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웹툰 복학왕의 연재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재석에게 거짓말 하던 카걸 부부, 결국 유튜브 단았다

방송 이후 허언 논란 확산 "영상·행보 잘못됐다" 사과문

자동차 전문 유튜버인 카걸·피터 부부가 모든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들은 재력과 네트워크를 앞세워 유튜버 활동을 해왔다. 구독자는 30만명에 달한다. 영국의 공작이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하는 모습이나 슈퍼카인 맥라렌 공장에서 창업자 딸에게 안내를 받는 영상 등을 올린 인기를 끌었다.

◇tvN 유퀴즈 출연한 뒤 '거짓말·허언' 의혹 확산

이들은 지난 5일 방송된 tvN 유퀴즈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테슬라 지분 1% 보유설 등에 대해 과장이라고 하면서도 '초기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피터는 "테슬라 설립 초기에) 일론 머스크 형님의 옆집에 살았는데, 대학생 신분엔 대학교 등록금 정도를 투자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지분 1% 보유설은 인터넷에서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또 방송은 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유재석과 조세호에게 페라리 디자이너 마우리치오 콜비의 그림을 선물했다. 이후 해당 장면을 직접 유튜브에 공개하며 "유재석에게 선물한 그림이 한국에 온다" 등 홍보에 활용했다.

이후 일부 유튜버들이 카걸·피터의 발언에 대해 '팩트 체크'에 나섰다. 이들이 테슬라 초기 주요 주주 명단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던 맥라렌 창업자 딸의 공장 안내 역시 과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사과문 올리고 유튜브 영상 모두 내려

카걸·피터 부부는 12일 유



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구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진행 중인 논란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저희의 영상과 행보가 잘못됐음을 인정한다"고 썼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던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카걸·피터 부부는 "시승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특히 영상에 등장하는 자동차가 저희 소유가 아님을 밝혔어야 했는데 채널의 콘셉트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보여주기에만 몰두했다"고 썼다.

이어 "구독자님들이 저희를 재벌이라고 여기시는 반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또한 관심이라 여기며 그것을 제때에 정정하지 않고 묵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조희수 늘리고 싶어 자 극적 화법 썼다"

카걸·피터 부부는 "이것

을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으나, 조회수를 늘리고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자극적인 화법을 써서 여러분이 상상하게 했다"며 "민감한 부분들을 정정하지 않았다. 모두 저희의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30만명의 구독자 중에는 미래를 향해 하루하루 자신의 꿈을 키우는 꿈나무들도 많았다. 이분들이 그동안 응원해주셨던 것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피터·카걸 부부는 "좋은 영향력만 드러야 했는데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저희의 깊은 뉘우침과 진심이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9가지 의혹 해명했지만... '구차하다' 비난 쏟아져

카걸과 피터는 자신들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 초기 투자자설, 제주맥주 지분 투자 의혹 등이다.

매장 앞에서 영상을 찍어 올린 것이다.

카걸과 피터는 테슬라 주식과 관련해 "(주식) 1% 매수설은 저희가 언급한 적이 없었고, 인터넷에서 과장된 부분"이라고 했다. 제주맥주와 관련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했다. 소규모 투자임에도 제주맥주에서 '주주님'이라고 이름을 새긴 컵을 준비해주셨다"며 "이에 들떠 영상으로 만들며 소위 '드립'으로 대주주,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장난섞인 반어법 표현을 자막으로 삽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널 규모가 작았던 당시에는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 경솔한 행동이었으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카걸과 피터의 해명에 네티즌들은 "방송에서 내놓고 사기극을 벌인 것"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 스페이스 렌트

한인 상권의 중심지인 고려플라자에서 새로운 레너트를 구합니다.

- 면 적 : 1) 856 sqft, 2) 1,050 sqft
- 업 종 : 한의원, 학원, 클리닉, 치과, 사무실, 네일샵, 마사지샵 등
- 문 의 : 최순일 부동산, (403) 479-1472